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김성주 부소장 (sjkim22@bnkfg.com)
정성국 수석연구위원 (skjung@bnkfg.com)

동남권 상장기업의 매출 성장세는 2013년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나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으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연대기에 창업한 기업과 건설, 음식료 등 내수기업은 양호한 경영실적을 시현하고 있다. 한계기업 비중은 전국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수출기업 및 장기간 업황이 부진한 조선관련 업체의 경우 부실이 우려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숙기에 진입한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강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

동남권 상장기업은 총 179개사

2016년 6월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동남권 기업(본사 소재 기준)은 코스피(KOSPI) 88개사, 코스닥(KOSDAQ) 91개사로 총 179개사이다.¹⁾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이 154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종은 25개사가 상장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금융회사 중 재무제표 등 기업실적자료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① 금융업, ② 비금융지주회사, ③ 주의환기 및 관리대상기업, ④ 기타 방송·출판업, 12월의 결산·공시서류 미제출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총 26개사를 제외하였다.²⁾ 한편 동남권에 본사가 없지만 현대자동차, S-Oil, 대우조선해양 등 주사업장을 두고 지역에서 비중 있는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34개 코스피 기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상장기업은 총 187개사(코스피 109개사, 코스닥 78개사)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82개사, 부산 58개사, 울산 47개사가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상장기업 현황

(개)

구 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KOSPI	109	29	38	42
KOSDAQ	78	29	9	40
소 계	187	58	47	82

자료 : 한국거래소

1) 부동산·임대업 SPC 15개사, KONEX 상장 5개사를 포함하면 동남권 상장기업은 총 199개사다.

2) 분석제외 기업 현황

금융업	비금융지주회사	주의 및 관리종목	기타	계
1	7	9	9	26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업종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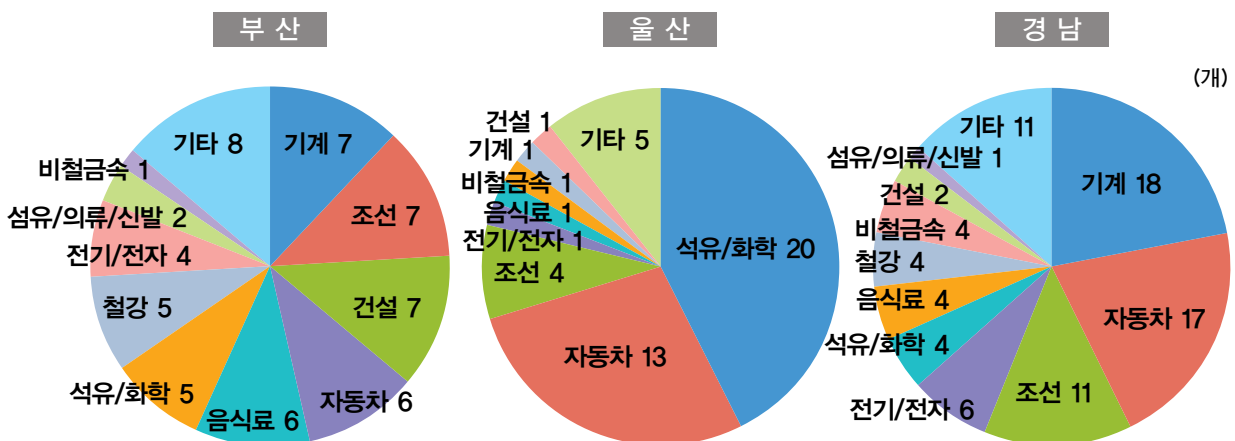
분석대상 상장기업(이하 상장기업이라 한다)의 업종별 분포³⁾를 보면 동남권 주력 산업인 자동차(36개사), 석유·화학(29개사), 기계(26개사), 조선(22개사) 영위 기업이 113개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 음식료, 건설, 철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이 33개사로 70%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남은 기계, 자동차, 조선 업종이 46개사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기계, 조선, 건설, 자동차 업종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동남권 상장기업의 산업별/지역별 분포

(개)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기·전자	음식료
36 (19%)	29 (16%)	26 (14%)	22 (12%)	11 (6%)	11 (6%)
건설	철강	비철금속	섬유·의류·신발	기타	소계
10 (5%)	9 (5%)	6 (3%)	3 (2%)	24 (13%)	187 (100%)

주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3)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ICS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에서 활용되는 WICS(WISEfn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체계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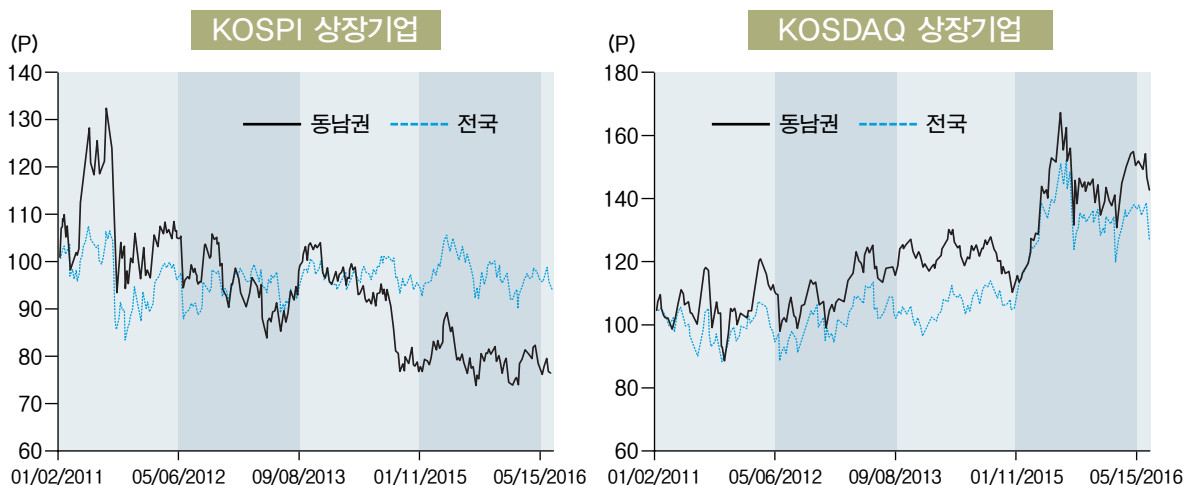
동남권 코스피 지수는 최근 부진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국수준 상회

분석대상 상장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2016년 6월말 코스피 136조원, 코스닥 10조원으로 총 146조원이며 분석기간 중 신규상장(24개사)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일의 186조원에 비해 40조원 감소하였다.

동남권 코스피 지수⁴⁾는 2011~2012년 중에는 조선, 기계 업종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자동차, 비철금속 업종에 힘입어 전국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전국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 코스피 지수는 기계, 조선업의 하락 등으로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동남권 코스닥 지수는 2012년 하반기~2014년 중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국 상승폭을 상회하였다. 2015년 이후에도 기계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여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남권 상장기업 주가지수 ¹⁾²⁾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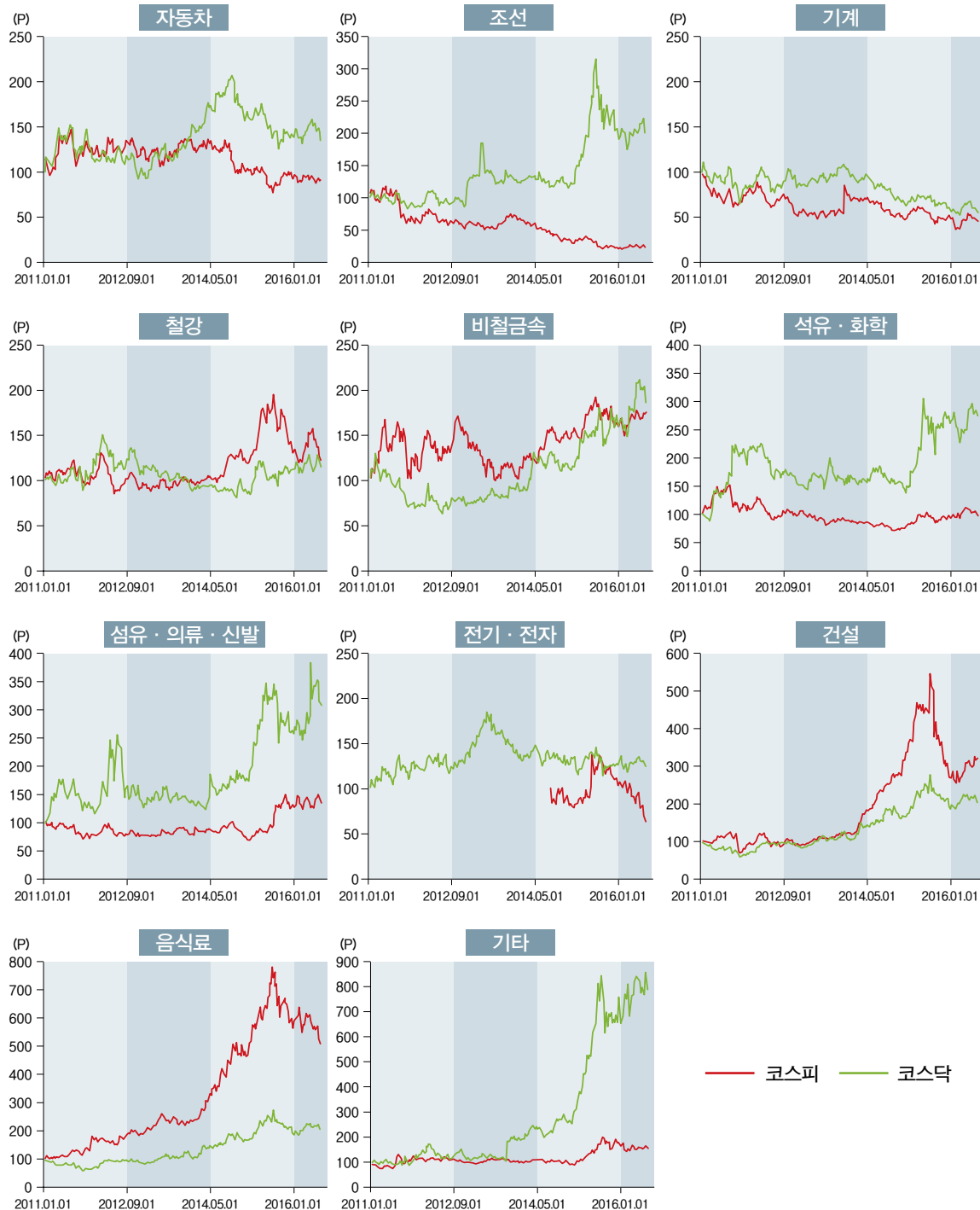
주 : 1) 주단위 종가 기준으로 작성(2011.1.2일~2016.6.26일)

2) 지수(2011년 1월 2일 = 100)는 시가총액으로 산출

자료 : Bloomberg, Fnguide

4) 2011.1.2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환산하여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

동남권 상장기업 업종별 주가지수



주 : 1) 주단위 종가 기준으로 작성 (2010.1.2일 ~ 2016.6.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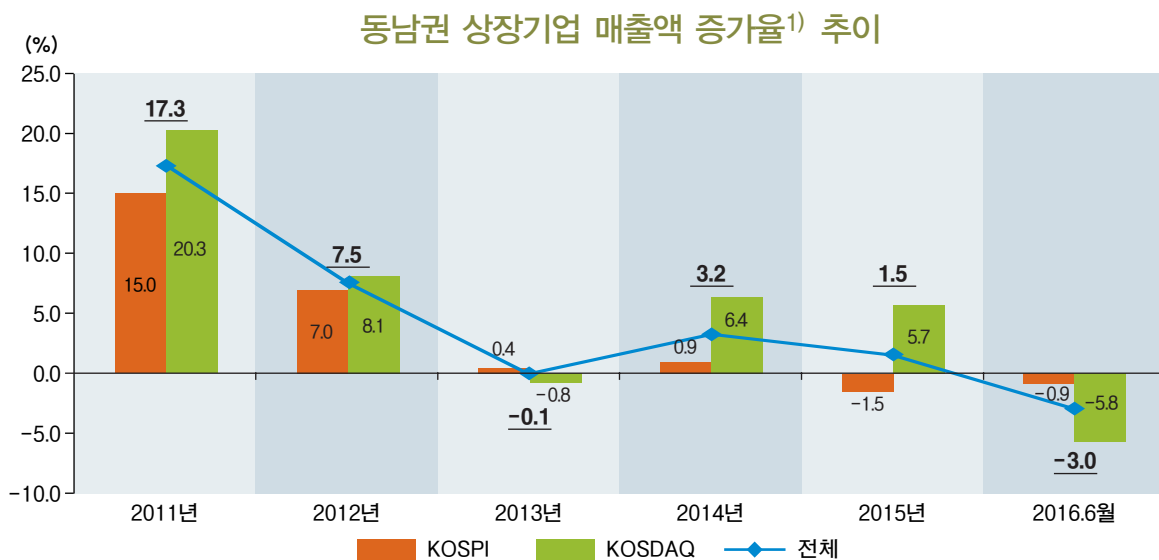
2) 지수(2010년 1월 2일 = 100)는 시가총액으로 산출

자료 : Bloomberg, Fnguide

동남권 상장기업 성장성은 큰 폭으로 저하

상장기업의 성장성은 2013년부터 크게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증가기업 비중도 47.1%로 최근 6개 사업년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소속 기업은 2013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중에도 전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9%를 기록하였으며 기계(-19.4%), 철강(-4.9%) 업종이 매우 부진한 모습이다. 2014~2015년 중 6% 내외의 신장세를 보이던 코스닥 기업의 매출액도 2016년 상반기 중 -5.8%로 감소했다. 기계(-44.8%) 및 철강(-27.4%) 업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며 이를 제외시 평균 7.6% 성장하여 업종간 매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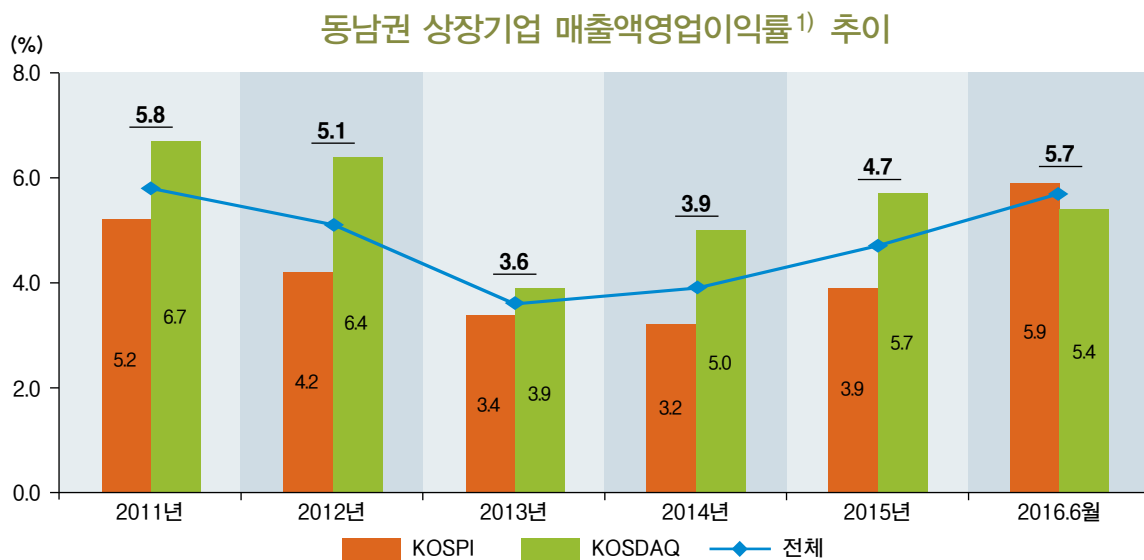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전 체	87.8%	61.7%	49.5%	58.4%	54.6%	47.1%
KOSPI	90.3%	63.8%	49.1%	53.3%	47.7%	45.0%
KOSDAQ	84.6%	59.0%	50.0%	65.4%	64.1%	50.0%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각 업체별 실적을 단순평균하여 산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수익성은 2014년 이후 개선 추세

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 3.6%로 하락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5.7%로 회복되었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5.9%로 최근 6개 사업 연도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코스닥 기업은 5.4%로 코스피 기업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상승은 매출 신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및 판관비 축소 등 이익 보전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흑자기업 비중 역시 2015년 73.0%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80.2%로 높아졌으며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의 72%를 차지하는 상위 10개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상승하였다.



흑자기업 비중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전 체	87.9%	84.7%	84.8%	75.1%	73.0%	80.2%
KOSPI	91.3%	86.7%	87.7%	77.6%	72.9%	81.7%
KOSDAQ	83.3%	82.1%	80.8%	71.8%	73.1%	78.2%

주 :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각 업체별 단순평균하여 산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조선, 기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창출능력 유지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대부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건설, 비철금속, 석유·화학 업종은 타산업에 비해 높은 수익창출능력을 보였다. 전기·전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이익률을 시현 중이며 건설은 분양시장 호황 등으로 2013년부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성장성 측면에서도 전기·전자, 건설 업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1.4% 및 9.6%로 양호하다.

반면 조선업의 경우 2012년 이후 매우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기계 업종은 전방산업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공작기계, 조선기자재 등에 주력하는 일부 코스닥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¹⁾ 추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전 체	5.8%	5.2%	3.6%	3.9%	4.7%	5.7%
자동차	4.6%	4.8%	4.7%	3.9%	4.3%	4.7%
석유·화학	5.0%	3.6%	2.4%	1.6%	4.6%	7.7%
기계	6.6%	7.5%	3.7%	6.0%	4.1%	2.1%
조선	5.8%	1.4%	-2.6%	-0.8%	-0.3%	1.2%
전기·전자	12.5%	12.2%	13.6%	5.4%	11.6%	14.4%
음식료	5.4%	5.3%	4.7%	5.4%	6.7%	7.4%
건설	5.0%	4.7%	6.8%	9.2%	9.6%	11.5%
철강	5.1%	2.8%	1.5%	1.5%	1.8%	3.3%
비철금속	7.2%	6.6%	5.7%	6.0%	6.4%	9.4%
섬유·의류·신발	6.2%	3.3%	-1.0%	1.9%	1.5%	3.8%
기타	5.1%	6.4%	3.3%	6.2%	5.4%	5.8%

주 :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각 업체별 단순평균하여 산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경제개발연대기(1961~1980년) 창업기업의 경영실적이 우수

동남권 상장기업의 업력⁵⁾은 평균 41년이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연대기(1961~1980년)에 창업한 2세대 기업이 96개사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세대(30%), 1세대(19%)의 순으로 많았다.

동남권 상장기업 업력별 현황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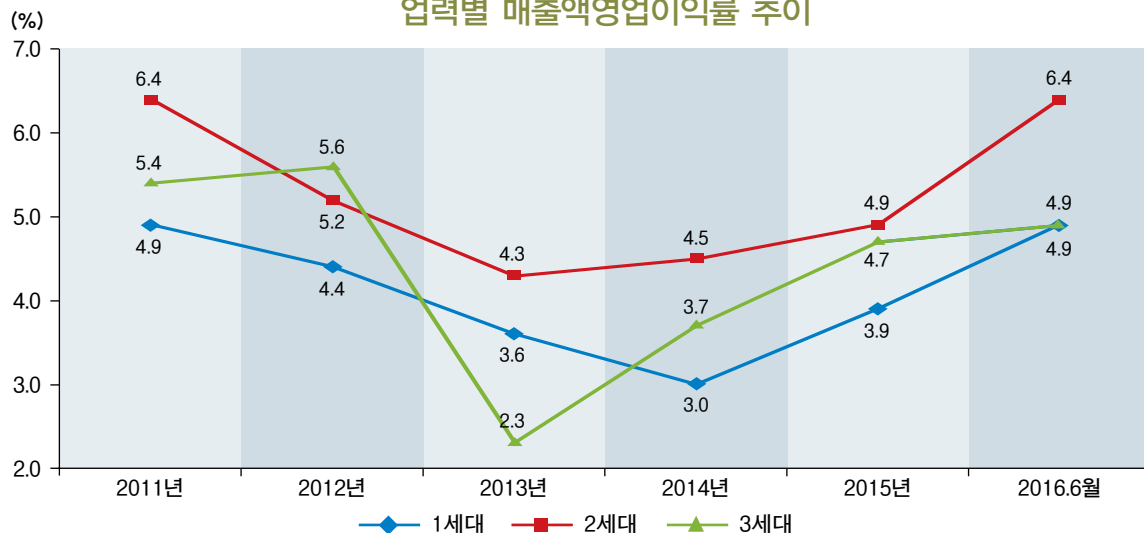
구 분	1세대 (1960년 이전 창업)	2세대 (1961~1980년 창업)	3세대 (1981년 이후 창업)
대상기업수	36 (19%)	96 (51%)	55 (30%)

주 : ()내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각사 홈페이지

업력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세대 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세대 기업에 상대적으로 업황이 양호한 건설, 자동차 업종이 다수 분포해 있고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 평균 이상의 수익 창출을 보인 기업이 개발연대기에 주로 창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개발연대 이전에 창업한 1세대 기업의 이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5) 기업의 업력 분류시 창업연도와 설립연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창업연도를 기준으로 구분

대외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기업 부진

동남권 상장기업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은 69개사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 조선,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기업 비중이 높으며 음식료, 건설, 철강은 내수기업 위주로 나타났다.

동남권 상장기업 내수 · 수출 현황

(개)

내수기업	수출기업	소계
118 (63%)	69 (37%)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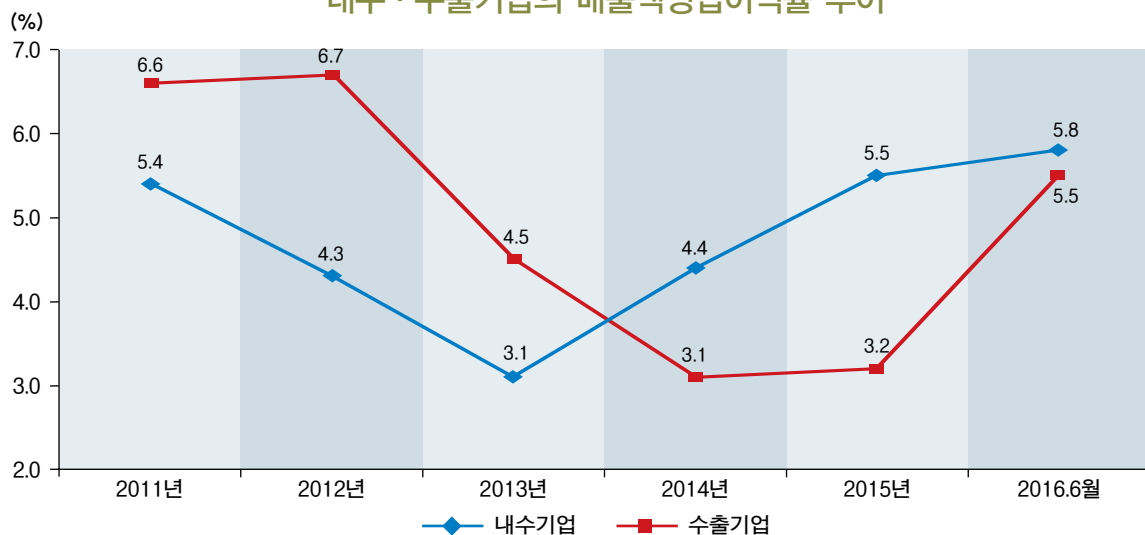
주 : 1) 2015년 매출액 기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수출기업으로 분류

2) ()내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2014년부터 내수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석유 · 화학, 자동차 업종의 영향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기계, 조선 업종의 수출 악화로 음식료, 건설 등 소비재 중심의 내수기업보다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내수 · 수출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R&D 고투자 기업의 경영실적 우위

동남권 상장기업의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2015년 기준)은 평균 1.56%이다. 전기·전자(3.44%), 섬유·의류·신발(2.42%), 자동차(1.80%)가 비교적 높다. 업종별 R&D투자비율 평균을 기준으로 R&D투자비율 상·하위사를 구분할 경우 상위사는 41개사(35%)이다. 이와 같은 기업별 R&D투자비율은 분석대상 기간중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상장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현황

(개)

상위사	하위사	소계
41(35%)	77(6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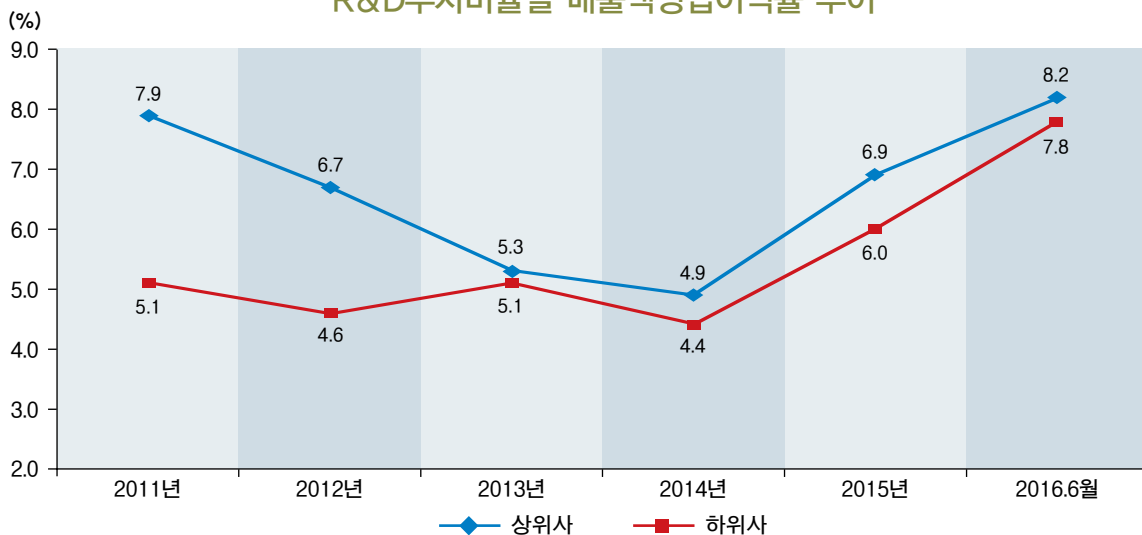
주 : 1) 기타업종(24개), R&D투자액 미공시(25개), 2016년 6월 영업손실(20개) 기업 제외

2) ()내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R&D투자비율 상위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하위사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상위사의 수익성 창출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기·전자, 음식료 업종의 경우 하위사 대비 5%p 이상 상회하고 있어 R&D 투자에 따른 경영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R&D투자비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한계기업 비중은 전국대비 낮은 수준

동남권 상장기업 중 이익창출능력이 크게 취약한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23개사(12.3%)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⁶⁾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은 전기·전자, 건설, 비철금속의 경우 전무하였으나 장기간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은 타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이면서 동시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이중(二重) 부실 상태에 있는 기업은 7개사로 파악되었다. 이들 기업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부실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 3년 연속(2014년~2016.6월) 한계기업 현황

(개)

구 분	이자보상배율 ¹⁾ 100% 미만 기업	부채비율 ²⁾ 200% 초과 기업	이중(二重) 부실 기업
전 체	23	26	7
자동차	3	7	1
석유·화학	5	1	—
기계	3	3	1
조선	7	6	2
전기·전자	—	2	—
음식료	1	1	—
건설	—	—	—
철강	1	2	1
비철금속	—	—	—
섬유·의류·신발	1	1	—
기타	2	3	2

주 : 1)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2)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외부대상 감사기업 중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14.7%이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13.7%, 중소기업 15.0%로 나타났다.

기업경쟁력 제고 및 가치증대를 위한 노력 중요

동남권 상장기업의 매출 성장세는 부진한 모습이나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으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연대기에 창업한 2세대 기업은 경기침체에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시현하여 위기관리능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음식료 등 내수기업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수출기업 및 장기간 업황이 부진한 조선관련 업체의 경우 부실이 우려된다.

동남권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상당기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성장세가 선진국을 계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밀기기, 의료용품 등 신흥국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 업황이 양호한 동남권 전기·전자, 의료 업종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으로 구성되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이들 업종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산업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침체에도 R&D 투자 상위기업의 수익성은 하위기업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동남권 상장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1.56%로 전국(2.9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R&D 투자를 기반으로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극복하여 신성장 사업 발굴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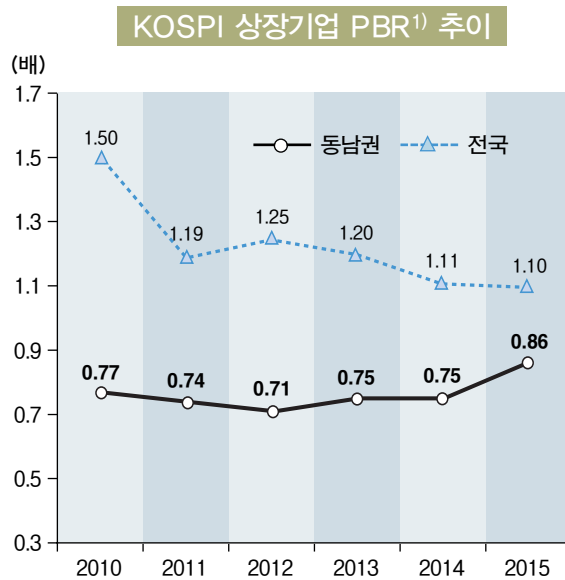
(%)

동남권 평균	전국 평균				
		전기/전자	의료/정밀	제조	서비스업
1.56	2.96	8.09	6.59	3.63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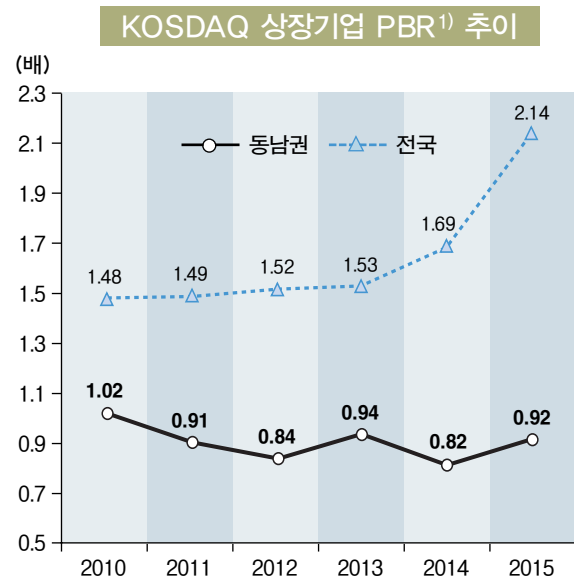
주 : 전국 수치는 2014년 기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동남권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전국대비 코스피는 78%, 코스닥은 43%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의약품,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작은 이유도 있으나 기업가치와 부합되는 적정수준의 주가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IR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국 코스닥 상장사 중 최근 5년간 IR개최 실적⁷⁾이 있는 기업은 평균 16.5%이다.⁷⁾ 동남권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중 IR 개최실적 보유기업이 10개사(12.8%)에 불과하다. IR 활성화를 위해 IR의 중요성에 대한 개별기업의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주 : 1) 중위값 사용
자료 : Bloomberg, Fnguide



주 : 1) 중위값 사용
자료 : Bloomberg, Fnguide

7) 코스닥상장법인 중 IR개최실적 공시기업 비중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5%	15.5%	13.0%	15.7%	17.7%

자료 : 한국거래소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에프엔가이드, www.fnguide.com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krx.co.kr)

_____,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법인 IR개최 현황 분석”, 2016.4.18.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전성 평가와 시사점」, 2015.3.

한국기업데이터, www.cretop.co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6.1.27.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30.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상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BNK금융그룹,
세계 최고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Asia-Pacific지수
2년 연속 편입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